

## 인문치료를 위한 자녀 양육자의 은유적 스토리텔링 능력 개발 방안

임춘택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자녀 문제와 그 주변 상황을 고려한 은유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즉, 자녀 문제에 맞춰 양육자가 이야기를 생산 또는 선정,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sup>1)</sup> 자녀의 연령대는 아동 시기로 정한다. 자녀 성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자가 자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대처하여 양육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고려되겠지만, 은유적 스토리텔링 치료는 여러 면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 보다는 외국에서 은유치료가 상담심리치료에서 놀랍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로 해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밀튼 H. 에릭슨 재단 책임자 J. Zeig(2004, 개인적 서신)는, ‘정보’는 아이들이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이야기’는 아이들이 달라질 수 있게 하는 경험을 창조해 낸다.”<sup>2)</sup> 라고 언급하였다. 대표적으로 호주를 비롯한, 서구권에서는 30년 전부터 이루어져온 은유적 스토리텔링 치료에 관한 방법과 실제 사례가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들어서 더욱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외국의 질적 연구 결과물에서 은유치료의 탁월한 효과를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은유치료 분야의 거장이라 일컫는 G. W. Burns를 비롯하여 D. Brett의 은유치료 방법과 사례에 관한 문헌의 일부가 국내에도 소개되어 있다.<sup>3)</sup> 독일어권의 경우는 독일 프리츠 페를스 연구소(Fritz-Perls-Institute)와 관계하고 게슈탈트 심리치료의 계보에 있는 H. G. Petzold 등의 연구가 국내 학자들에 의해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다.<sup>4)</sup> 그럼에도 아직은 이런 은유치료에 관한 문헌 또는 질적 연구가 외국과 비교하면 국내에서는 시작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sup>5)</sup> 물론 문헌 연구가 몇몇 뜻있

1) 은유적 스토리텔링 치료 외에 본 연구자의 주요 연구 분야는 문학교육(수용미학, 행위 및 생산 지향 문학 교수법 등), 글쓰기교육(창의적 글쓰기, 스토리텔링, 자기표현, 글쓰기 치료, 문화콘텐츠 창작, 문화 간 의사소통, 글쓰기 이론 등)이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두 분야를 은유적 스토리텔링 치료로 묶어 세 분야를 융합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이자, 본격적인 은유적 스토리텔링 실제 치료를 위한 문헌 중심의 준비 작업으로써의 성격을 띤다.

2) G. W. 번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마음을 치유하는 101가지 이야기 101 Healing Stories for Kids and Teens: Using Metaphors in Therapy』 학지사, 2009, 499쪽.

3) D. Brett 『아동을 위한 스토리텔링 기법 은유적 이야기치료 More Annie Stories: Therapeutic Storytelling Techniques』 여문각, 2009; G. W. 번즈, 『이야기로 치유하기 - 치유적 은유 활용 사례집 Healing with Stories - your casebook collection for using therapeutic metaphors』 학지사, 2011.

4) 독일 문학치료와 관련하여 활발하고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하는 국내 학자로는 변학수(경북대 문학치료학과 교수), 채연숙(경북대 문학치료학과 교수), 이민용(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HK 교수)을 꼽을 수 있다. 독일어권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의 10년 간 인문치료에 관한 연구와 활동이 이제는 국내에서 괄목할만한 실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는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은유치료라기 보다는 대부분은 지극히 문학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문학연구, 은유연구’이다. 따라서 문학이론, 문예창작, 심리학, 질적 연구 방법론 등을 아우른 은유적 스토리텔링 ‘치료’에 관한 논의와 사례가 국내 연구에서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은유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육자의 많은 준비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많은 준비와 노력 가운데에서도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제인, 은유치료 관련 사례 중심의 문헌들을 기반으로 한 은유 치료 방법에 대한 확인은 양육자가 실제 치료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 본격적인 은유치료 전에 양육자가 자녀(내담자) 문제 상황에 맞춰 이야기를 창작하고 가상으로 모의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므로써, 실제 치료에서 덜 당황하고 비교적 능숙하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담심리전문가들에 의한 다양한 은유치료 사례를 학습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도 은유치료 실재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과정에 해당하므로, 양육자가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 양육자의 관계를 혈육으로만 한정짓지 않고 ‘실질적인(일시적, 임시적이라 할지라도) 자녀와 양육자 관계’로 정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는 친부모 외에 조부모, 친척, 신앙의 멘토 등이 특정 시기와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양육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2장의 한 부분에서 양육자의 중요성과 자질이라는 주제로 다루기로 한다. 본 연구는 인문치료를 위해 필요한 양육자(치료자)의 은유 스토리텔링 능력 향상 방안에 관한 것이라 밝혔다. 양육자와 상담자가 이와 같은 일련의 은유치료 연구를 확인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외에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고, 은유치료 관련 문헌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녀(내담자)의 스토리텔링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자녀 문제를 예방·해결하는데 유익한 결과를 얻었으면 한다.<sup>6)</sup> 나아가 양육자가 은유치료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것과 함께, 양육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가까운 친인척 등을 대상으로 실재를 대비한 ‘예비적 은유치료’를 경험하고, 이들로로부터 치료와 관련한 제반 조언을 함께 들을 수 있다면 은유치료를 학습하는 양육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2. 은유치료자로서의 자녀 양육자의 개념과 중요성 및 자질(자격)

### 1) 개념 정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양육(養育)과 양육권의 정의를 각각 “아이를 보살피서 자라게 함”,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로 하고 있다. 양육은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의무 보다는 권리를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sup>7)</sup> 개혁개정 성경에서 ‘양육’(‘양육자’ 한 단어를 포함하여) 단어는 모두 21번 나온다. ‘양육’에 상응하는 단어를 NIV 성경과 비

5) 은유로 가득한 성경을 믿는 기독교에서도 은유 연구만이 주를 이룰 뿐, 본격적인 은유치료에 관한 다수의 사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6) 은유치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은유교육도 자녀와 양육자 모두에게 이루어지므로 은유교육 성과도 본 연구에서는 은유치료의 효과에 포함된다.

7) 물론 권리 안에 의무도 포함한다고 통상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겠지만 의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은 요즘 세대의 제반 문제들을 고려해서라도 쓰는 것이 맞다.

교한 결과 'bring up'이 6번(에 2:7, 2:20, 사 49:21, 엡 6:4, 딤편 4:6, 5:1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rear'가 4번(사 1:2, 23:4, 51:18, 왕하 10:6)이었다. 그 다음으로 'take care of' 2번(계 12:4, 6), 'care'(룻 4:16), 'lead'(렘 3:15), 'feed'(엡 5:29), 'teach'(디도 2:12), 'pamper'(잠 29:21), 'carry'(민 11:12), 'nurse'(삼상 1:23), 'adopt'(에 2:15)가 각각 한 번씩 나왔다. 어린 자녀를 기르는 것, 돌보는 것, 신약에서는 성도의 신앙 교육과 성장, 국어사전과 성경을 종합해보면 양육은 자녀를 기르는 것인데, 의식주를 제공하고, 교육하고, 인격적인 상호 작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인간답게', '하나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한 양육자의 모든 양육 방법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약(디도 2:12)에서는 교인을 가르친다는 의미로도 쓰이므로 어린이 청소년 자녀를 '기르는 차원'을 넘어서 쓰이고 있다. 한국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와 영적 돌봄 등을 포괄하는 제자 양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교인을 실질적인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족의 자녀를 기르듯, 성경 공부와 기도 그리고 교제로 잘 돌본다는 의미에서, 교회의 일반적인 성경 공부와 일상의 가정생활 차원을 넘어서는 전인격적 양육의 의미로 사용한다.

## 2) 중요성 및 자질(자격)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와 그들의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양육권자이다. 온전한 양육의 이론과 실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배워야 한다. 기독교인 부모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생각과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 양육자인 자신을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깨닫고 이를 마음과 생각과 행위로 수용하여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를 행위로 전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양육권과 그 방법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나아가 친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교회 성직자, 성도 등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영적 양육권자의 모습을 몇몇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과정이 필요하다. 친부모와 친조부모 등과 같은 혈육 관계 외에 있는 임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실질적인 양육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는지를 확인하고, 양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sup>8)</sup>

## 3. 은유치료 과정과 창작 방법

### 1) 문제 확인과 자원 개발

자녀의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로 직결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이 둘의 관계를 기초한 은유적 스토리텔링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녀와 양육자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임에도, 상담 관련 전문가의 정확한 관찰과 면밀한 상담을 바탕으로 한 문제 파악과 근원적인 원인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료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양육자가 자

8) 이런 예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 교역자들 가운데서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확인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분들에 관해 지면으로 접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땅끝의 아이들』의 저자 故 이민아 목사,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의 저자 천중호 판사, 인천방주교회 박보영 목사가 버려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삶 등이다.

녀의 문제를 은유적 스토리텔링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육자가 자녀를 대할 때, 제3자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 ‘난 내 자녀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내 아이의 문제는 이것이야.’ 라든지 ‘내 아이는 이렇게 해야 돼.’ 와 같은 자세를 포기해야 한다. 물론 대부분의 친부모 양육권자들이 본인들의 자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잘 안다는 것이 성격과 취향, 생활 습관, 인지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가치관, 행동, 타인을 대하는 태도 등을 보고 따라하는 자녀들은 부모와 동일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sup>9)</sup>

치료 과정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들, 예를 들어 어린이의 경우 학교 부적응, 학습 장애, 공격적인 성향과 폭력성 등, 청소년의 경우 우울한 기분, 식욕 감퇴, 불면증, 피로, 정서 불안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외에도 병명을 알기 위한 작업으로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일상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인지 관찰하고 자녀의 연령에 맞는 언어수준을 고려하여 문제를 확인한다. ‘아동심리진단 프로그램’,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등과 같은 일련의 진단 방법들을 확인하여 도움을 받는다.

자녀에게 제시된 문제를 확인한 이후, 자녀가 갖고 있는 장점과 기질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별히 좋아하는 이야기책이 무엇이고, 그 책의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한다. 자녀의 친구 관계를 이용하여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한다. 좋아하는 텔레비전 만화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자녀의 기질 가운데서 장점들을 확인한다. 이해심, 나눔 정신, 배려심, 경쟁심, 질문하기 좋아함, 끈기, 만들기 좋아함 등등

## 2) 목표 설정

- (1) 1 단계: 일반적인 문제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례로 옮겨 감  
 앞의 ‘문제 제기’ 단계에서 나타난 증상과 진단 결과를 토대로 자녀의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확인한다. 1 단계는 자녀가 지닌 문제를 외현화 하는 시작 단계에 해당한다.
- (2) 2 단계: 사실 진술에서 감정 표현으로 옮겨 감  
 여기에서는 자녀의 감정이 어떤 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자녀가 감정을 말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슬프다, 괴롭다, 속상하다, 화가 난다 등등
- (3) 3 단계: 자녀의 은유 탐색 및 변형
  - ① 은유 알아채기: 자녀가 문제와 관련하여 표현한 말 가운데서 문제와 관련하여 자기의 마음 상태를 빗대어 말한 표현을 놓쳐서는 안 된다.
  - ② 은유적 심상에 집중하기: 자녀가 사용한 은유 표현이 자신에게 어떤 심상으로 떠오르는지 확인한다. 색깔, 소리, 냄새, 명암 등.<sup>10)</sup>
  - ③ 감각적 심상으로 은유 탐색하기: 자녀의 표현에서 보다 많은 은유 표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된다.
  - ④ 은유적 심상 관련 감정 탐색하기: 자녀가 표현한 은유와 연관한 자녀의 감정은

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은유적 스토리텔링 교육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가정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권자가 스스로 학습하고, 전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공동 모임을 통해 상호 교류하는 과정 등이 필요하다.

10) 애써 만든 자녀(내담자)의 은유 표현을 양육자(상담자)는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어떠한지 확인한다. 감정 표출이기도 한, 이 과정을 통해 자녀의 심적 부담감이 줄어드는 시간이 될 수 있다.

⑤ 은유적 심상 바꾸기와 자녀 문제에 맞춘 이야기 창작: 이전 단계가 문제에 대한 탐색 및 문제의 이완 과정에 해당한다면, 이 과정부터는 은유 치료로의 본격적인 돌입 단계라 말할 수 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문제와 상처에서 해결과 치료로의 과정이다. 문제의 심상을, 바꾸고 싶은 심상으로 변화를 가한다. 목표로 세운 결말에 맞추어 문제에 맞춘 이야기를 양육자 단독이나 자녀와 함께 창작한다. 은유적 스토리텔링은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야 하고, 자녀를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면서도 치료에 효과적이다.

⑥ 바뀐 심상을 현재 상황에 적용하기: 여러 회기에 걸쳐 진행된 은유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자녀에게 바뀐 심상을 현재와 실제 상황에 적용한다.

C. Perry는 은유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치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은유적 스토리텔링의 치료적 유효성은 자녀(내담자)의 은유적 언어를 밝히고 반영하고, 협력적으로 자녀 은유를 탐색하고 변형하고, 변화된 은유를 자녀가 바라는 미래로 확장시킬 수 있게 확증해주는 양육자(치료사)의 능력에 달려 있는 듯하다.”<sup>11)</sup>

#### 4. 은유의 치료 기능 및 은유 치료 방법의 예

은유 치료 전문가인 M. D. Yapko는 인터넷 게임, TV 프로그램, 스마트 폰 등의 폭력과 공격적인 이야기의 범람이, 개인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이야기 문화의 상실로 귀결되는 세대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야기하기는 내리막길에 들어선 기법이 되어 버린 것 같다. 많은 컴퓨터 게임들이 폭력과 공격성의 이야기에 근거를 두고 있고, 많은 TV 프로그램들이(심지어 만화까지도) 전쟁과 살인, 폭력, 복잡한 관계 등을 말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은 가치관과 본질적인 삶의 기술을 전달해 주는 이야기의 전통적인 원칙보다는 오락의 원칙에 근거한다.”<sup>12)</sup>

은유치료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준비 과정도 필요하고 자녀 문제에 맞는 이야기를 선정하고 창작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일정한 방법을 숙지하여 실행한다면 가정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과 같은 편안한 마음으로 ‘목적에 있는 이야기’를 자녀에게 선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남이 만든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부모로서의 조건 하나를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것에서 한 발 나아가 자녀의 관심, 자녀의 문제, 자녀의 성장을 위한 이야기를 창작하는 것은 더욱 값진 일이라 할 수 있다.

##### 1) 은유의 치료 기능

11) C. Perry ‘불길 속에서 -이야기치료에 대한 반성 및 은유-’, in: G. W. Burns, 『이야기로 치유하기 -치료적 은유 활용 사례집-』 학지사, 2011, 239쪽.

12) G. W. 번즈(2009): 496쪽.

인간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누구나 은유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 만 2 세의 한 아이가 화장실에서 큰일을 본 후에 엉덩이(항문)가 매우 아프다는 표현을 “엉덩이에 고슴도치가 들어갔어.”라는 표현을 했다. 이 아이는 고슴도치를 단지 그림책으로 몇 번 봤을 뿐 실제로 본 적도 없었는데 침과 같은 고슴도치의 가시가 얼마나 아픈지를 인지하고, 자기 엉덩이의 아픔이 고슴도치가 엉덩이에 들어갔을 때의 아픔만큼이나 심하다는 것을 은유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어른들도 일상에서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심정을 밝힌다. 나로호 관련 한 연구자는 나로호 발사 실패로 인한 심정을 “나로 2호의 공중 폭발은 마치 긴 방학 동안에 놀지 않고 열심히 방학숙제를 했는데 숙제검사를 받지 못한 기분일까” 라는 표현으로 궤도 진입 실패와 정상적인 인공위성 활동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예는 무수히 많아서 의식적으로 사람들의 말을 주의하여 들어보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발견할 수 있다. 그만큼 은유는 문학텍스트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논리 정연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언어활동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한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은유적 이야기는 단지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고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는 표현 방법에만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은유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 결과는 한 개인의 삶, 그 주변 사람들, 나아가 사회를 건강하게 바꾸는 것으로 드러난다. 치료 목적으로 표현된 은유적 이야기는 놀랍게도 치료에서 매우 효과적이고 온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누구도 자신의 고통을 흔쾌히 사람들에게 드러내 밝히거나 자신의 고통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모두들 이를 꺼려한다. 그 고통은 남이 겪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로 당사자에게는 수치심, 불안감, 적대감,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불러 일으키는 것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은유를 사용하는 것이다. 은유는 자녀가 자신의 문제를 한 걸음 뒤로 물러난 상황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은유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한 불쾌감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자녀가 잠가 둔 고통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열쇠가 되고 치료제가 된다.<sup>13)</sup>

## 2) 은유 치료 방법의 예

은유적인 표현은 현실 상황과 문제를 외현화한다. 예를 들어, C. 뇌스틀링거의 『오이대왕』에 등장하는 오이대왕은 주인공 볼프강 호겔만의 권위적인 아버지의 특성이 투영된 환상적인 존재다. 더불어 오이대왕의 등장으로 작품은 만화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재미를 더한다. 아동과 청소년 독자는 볼프강의 아버지와 오이대왕을 독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교하고 동일시하면서 둘의 문제를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과 연관 지어 생각한다. 나아가 독자는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가정문제(아버지의 권위주의)는 어떤 지를 점검할 수 있고 그

13) 본 연구자는 이를 무수한 임상치료 관련 논문과 책들 가운데 일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분야로 응용인문학을 선호하여 독일 문학 교육, 스토리텔링 교육, 학문적 글쓰기 교육, 자기표현으로써의 글쓰기 교육 관련 연구를 하는 본 연구자에게, 특히나 아동 • 청소년에게 더 효과가 있는 은유적 이야기 치료는, 인문학(독일 문학과 독일 아동, 청소년 문학을 활용하여)의 무한한 실용 가능성과 사회 기여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문학을 ‘현실 보다 더 현실적인 이야기’, ‘현실을 더욱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은유적 이야기다.’ 라고들 정의한다. 이 같은 문학에 대한 정의와 기능은 인간의 심미성 영역과만 한정되어 관련성을 맺는 것은 아니다. 문학을 치료와 관련짓는 은유적 스토리텔링 치료 연구자들은 연구를 통해 문학이 개인의 삶과 가족 그리고 사회를 ‘살리는’ 기능으로써의 새로운 진가를 발휘하도록 개발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볼프강의 강점, 자원을 경험한다. 이러한 『오이대왕』과 같은 은유적 이야기는 아동과 청소년 독자의 가정과 학교 관련 문제들을 외현화 시켜줌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거부감 없이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기 안팎의 자원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든다. 평소에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은유적 이야기(문학)를 통해 드러나서 문제가 진단되면, 학습자(내담자) 개인의 문제 상황에 맞춰 치료 목적으로 유도된 은유적 이야기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문제가 변할 수 있는 것이며 덜 고정적이고 덜 영속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치료가 이루어진다. 해당 문제로 고통당하는 학습자가 이처럼 자신을 이야기의 상황으로 외현화 하고 인물로 의인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굴복시키는 일상의 담론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은유는 자기증오나 타인에 대한 적개심 같은 분노의 원인을 자기 천성이나 원래 그 사람의 성격 탓으로 돌리지 않게 만들어 자기 삶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sup>14)</sup>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은유적 이야기를 고안하려면 최소한 몇 가지 방법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 중 한 예를 들어보면,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자녀가 지닌 자원을 파악하여 개발해야 한다.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주제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치료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치료적 은유의 원천은 학습자 안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동과 청소년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인터넷 게임, TV 드라마, 판타지 영화 등에서 이야기를 찾을 수도 있다. 한 치료 사례를 간략하게 들면, 한 10대 어린이가 잘 알려진 미국 영화 <쥬스>를 본 후 매일 밤 상어에 물리는 악몽에 시달렸다. 부모가 달래고 그것은 영화일 뿐이니 안심하라고 하고 꾸중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치료사는 이 어린이의 치료를 위한 자원을 찾아보았고 아이가 『해리포터』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치료사와 어린이는 『해리포터』를 함께 얘기했고 그 결과 아이는 온몸이 평온해지며 미소를 띠기까지 했다. 치료사는 이 어린이한테 해리포터의 동생이 되는 상상도 하고 놀면서, 자기를 상어한테서 보호할 수 있는 ‘주문’을 만들어 보라고 했다. 아이는 “하얀 빛으로 나를 둘러쌌어요!”라고 상상한 것을 말했고 치료사가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고 묻자, 만족감과 자신감을 보이며 “상어가 하얀 빛을 뚫고 나에게 다가오려고 하지만 그 빛이 보호 주문이라서 상어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상어는 더는 어쩔 수 없어서 지쳐 버렸죠. 하얀 빛을 뚫고 나를 물지는 못하니까요. 이제 상어는 멀리 가고 있어요.” 그 회기 이후 아이는 밤에 깨는 일이 없었으며 상어도 떠났다고 한다. 즉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매일 밤 상어에 쫓기고 물리는 것)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문제 때문에 놓치고 있거나 사용하지 않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양육자가 자녀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서 치료에서 이를 이용해야 한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문제는 극심한 스트레스, 삶의 무가치, 무의미 등이 원인이기 때문인데, 우울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격려와 관심과 함께 내담자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즉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다. 위의 아이가 상어 문제 때문에 잃어버리고 사용하지 않았던 해리포터를 찾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sup>15)</sup> 본 연구자도 자기표현과 치료를 위한 글쓰기 수업 시간에 각 학생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

14) 학습자를 치료하기 위한 은유적 스토리텔링 창작은 교수자가 학습자의 은유적 언어를 관찰하여 이를 학습자 치료에 맞게 변형시켜 학습자가 바라는 미래로 확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이 창작과정은 교수자 단독 또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공동 작업을 필요로 한다.

15) R. McNeilly,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상어에게 물리지 말고 - 은유에서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in: G. W. 번즈 『이야기로 치유하기 - 치료적 은유 활용 사례집』 347~355쪽.

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자신이 살아야 하는 목적, 대학 생활의 목적을 찾도록 지도한다. 그 결과 학생들은 삶의 방향과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삶을 지속하기 위한 매우 다양한 이유들을 찾아내고 막연했던 삶의 의미를 새롭게 각인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글을 통해 밝혔다.

## 5. 나가는 말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글쓰기와 의사소통’이라는 강의 초반부에서 ‘자기이해, 표현, 치유로서의 글쓰기’를 주제로 학생들이 글을 쓴다. 그 결과 전문 상담심리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한 학습자(잠재적 내담자)의 수는 이 글쓰기를 통해 드러나서 확인된 경우만 각 강의(40명 내외) 당 2~3명 정도였다. 우울증, 경계선, 공황장애, 학교폭력 등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학생들만 이 정도이고, 각종 심신의 문제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도 5~10명에 달한다. 글과 대화를 통해 관찰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학생들이 그리고 자신감이 넘쳐야 하는 20세 대학생들이, 믿기 힘들 정도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비교적 자신과 미래 그리고 환경에 대해 긍정적이고 노력하는 ‘건강한’ 20대 초반의 학습자는 각 강의실에 5명 많아야 10명이 그치고 있어 보였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특정 대학의 일부 사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사회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2013년 현재 한국 사회는 가정 해체, 빈부격차의 심화, 취업난, 학교 폭력, 세대 갈등 등등 온갖 위험 요소가 증가하는 위험 사회로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대항할 수 있는 단위는 가정이다. 자녀와 부모(양육자)의 올바른 관계 형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본은 문제의 외현화, 미래의 희망을 자녀에게 실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야기하기에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스마트폰, 인터넷, TV 등 각종 전자 매체의 범람 속에서 가치관과 본질적인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는 설자리를 잃었다. 인간은 기계와의 소통과 만남 이전에, 인격과 인격 간의 충분한 만남이 있어야 한다. 서로에게 무관심한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사회에서 극단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해지는 요즘 시대에, 매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의 인격을 배운 기독교인 양육자들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새로운 이야기, 자신의 자녀에게 필요한 이야기로 창작하여 함께 이야기하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정, 교회, 각종 모임에서 세대 간 ‘희망의 이야기’들이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워져서, 과도한 전자 매체 사용으로부터의 폐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도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